

세계 환경관련 시장 4000억달러

2000년 5720억달러로 성장 ... 미국 폐기물처리 시장 침체

세계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94년 4080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5720억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환경시장이 90년대말까지 17%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환경시장은 연평균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1994	1995	1996
처 리	Consulting	2,984	3,074	3,102
	Treatment and disposal	7,216	7,504	7,618
	On-site management	9,116	9,498	9,631
	계	19,316	20,076	20,351
재처리	Consulting	1,461	1,475	1,501
	Contracting	2,974	3,010	3,102
	계	4,435	4,485	4,603

96년 미국의 폐수처리용 화학제품 시장도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도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부문의 낮은 성장으로 투자의욕이 상실했으며 96년에도 2%가량의 낮은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소각 및 매립분야에서의 처리제 및 폐기처리 사업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최소화 및 재생산업 부문에 참여기업이 늘고 있다.

95년 상반기 기준 처리제기업의 경상이익은 3% 감소했다. 공급과잉 해소로 기업간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어 연산 1억4000만파운드의 Union Pacific USPCI 폐기물사업부 인수가 진행되고 있다. 처리제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환경산업이 막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환경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수출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환경보전국(EPA)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환경산업은 94년 세계 환경산업의 매출액 4080억달러에서 1700억달러를 차지, 다른 국가들보다 1000억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매출 중 수출비중은 6%에 불과, 수출측면에서는 환경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13개국 중 11위를 차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환경산업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으며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도 10~20%의 비교적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했다.

미국 환경산업이 낮은 수출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국내시장이 91년까지 연평균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리적인 고립성도 낮은 수출비중을 기록하는데 한몫을 차지, 독일은 비롯한 다른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비롯한 수출관련 비용이 국내시장 공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3~5배 높고 정부의 지원부족과 각국의 무역장벽도 수출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화학저널 1996/4/1>